

# 구례군, 국제경기대회 선정

### 국비지원 공모사업에서 3억원 국비 확보

### 국제철인3종경기 메카로 성장시킬 계획



구례군은 지난 18일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모사업인 '2020년 지자체개최 국제경기대회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국제 철인3종경기대회(아이언맨 구레코리아)가 선정되어 국비 3억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이언맨 구레코리아는 내년도 7회째를 맞이하며, 국내의 철인 선수들의 워너비 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13개 시도에서 38개 대회를 신청하여 서류 심사와 PT 발표를 거쳐 22개 대회가 최종

선정되었다.

'국제 철인3종경기대회'는 세계 철인3종경기 본사(WTC)가 주최하는 국내 유일한 풀코스 대회로 수영 3.8km, 자전거 180km, 달리기 42.2km로 이어지는 극한의 경주를 펼치는 대회다.

지난 2014년부터 구례군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5일간 열릴 예정이다.

올해 국제철인3종경기는 36개국에서 1,421명 규모로 개최 예정이었으나 17호 태풍 타파 영향으로 선수 안전을 위해 취소되어 선수와 관계자의 아쉬움을 얻은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대회 취소의 아쉬움을 만회할 성공적인 대회를 준비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행사 등 한층 더 내실 있는 대회로 꾸려나가겠다."면서, "철인3종경기의 메카로 입지를 확고히 구축하고 선수들과 관광객들의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례=박진호 기자

## 해남군 동지팥죽으로 이웃 간정 나누어

해남군 곳곳마을에는 풍요와 건강 기원 동지 팥죽 봉사가 이어지고 있다.

해남군에서는 매년 마을 공동체 행사 중 동지 맞이 행사를 진행하며 마을 이장, 부녀회장이 앞장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고 있다.

해남군 삼산면 매정리에 사는 서평선씨(57세)는 매년 이웃 간정을 위해 고향인 옥천면 도림리

에 손수 농사를 짓는 팥으로 어르신들의 대접하며 지금은 안계신 어머니이지만 어르신들에게 매년 해드린 팥죽행사를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한다.

동지는 1년을 24개로 구분한 24절기 가운데 스물두 번째 절기로서 일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며 동짓날에 팥죽을 먹으면 잔병이 없어서 건강해지고 액운을 피할 수

있다고 전해져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동짓날에는 팥죽을 즐겨 먹었다.

옥천면 도림마을은 그림처럼 아름다운 곳이다. 도림 마을은 동쪽으로는 강진과 맞닿은 주작산, 남쪽으로 대둔산, 서쪽으로 삼산면 덕음산, 북쪽으로 첩봉의 지락인 자경등이 있어 사방이 산이다. 가구 수가 30개정도이며 조용하고 도둑이 들어서지 않은 마을로 이웃 간 정이 넘치는 곳이다.

해남=서명환 기자

## 나주 한국천연염색관, '염색'과 '프랑스자수' 만남 전시회



나주시천연염색재단에서 운영하는 한국천연염색박물관에서는 프랑스식의 자수 작품을 다음 달 31일까지 전시한다고 밝혔다. '숲을 이루다'라는 제목의 이번 전시회는 나주시천연염색재단에서 주최 주관하는 기획전시로 12명의 작가가 참여해 프랑스식 자수 작

품 70여점을 출품했다.

프랑스식 자수는 일반적으로 도안과 스티치(stitches)에 특징이 있는데, 이번 전시회에 선보이는 작품들은 실을 스티치와 함께 감아 나무와 숲을 입체적이면서도 현대적으로 표현하는 주흐(Jour)모던 자수 기법으로 제작된 것들이다.

국내에서 처음 전시되는 주흐모던 자수는 나주 원도심에서 바느질카페 '바실리에'를 운영하고 있는 박연신 씨가 2004년부터 수년간 거주하면서 프랑스 그르노블에서 프랑스 전통자수기법인 주흐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나무로 표현하는 기법을 배운 후 국

내에 보급한 것이다.

전시회에 참여한 작가들은 주흐모던 기법을 국내에 처음 도입한 박연신 작가에게 배운 공통점이 있으나 자수, 퀼트, 천연염색, 규방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어서 전시 작품에는 섬유예술의 다양한 제작 및 표현 기법이 적용되어 있다는 평이다.

이번 전시회를 이끈 박연신 작가는 "프랑스식 주흐모던 자수 기법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시할 수 있게 해준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에 감사한다"며, "많은 분들이 섬유예술 작품을 감상하시고, 아름다움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나타냈다.

## 곡성군-전남과학대학교, 협력사업 추진...관학 협력 강화

###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 후학습 친화형 교육체제 운영



곡성군과 전남과학대학교가 올해 마지막 지역발전협의회를 18일 개최했다.

양 기관은 2017년 '관학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했다. 이후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 더욱 더 성장한다.'는 상생발전의 목표를 분기 1회 정기적인 만남을 가져오고 있다. 총 9회차(2019년

4회차)를 맞은 금번 회의에서는 한 해 동안 진행했던 협력사업의 성과에 대해 토론하고, 내년도 계획을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은 두 기관이 올 한해 추진한 12건의 협력사업에 대해 지속 추진 가능성과 필요성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

되었다.

대표적으로 관학협력사업을 통해서 발전시킨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과 후학습 친화형 교육체제 운영성과를 공유하며 발전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또한 제8차 회의 때 논의됐던 '청년농업인큐베이팅 허브센터 구축' 사업을 이번 제9차 회의를 통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전남과학대학교 총장은 "다르고 멀게 느껴졌던 두 기관이 만나 서로 윈윈하는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창출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관학 상생협력 협의회가 더욱 발전하길 바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곡성군 기획실장은 "협의회를 통해 우리 군과 과학대가 함께 발전하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낀다. 특히 오늘 체결한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허브센터 구축을 위한 협약이 청년농부 유망 활성화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보성군, 오는 31일 한화와 손잡고 새해맞이 불꽃축제

보성군은 12월 31일 울포솔밭해수욕장 일원에서 한화그룹과 손을 잡고 대규모 불꽃축제를 개최한다.

'보성 울포해변 불꽃축제'는 12월 31일 19시부터 시작되며 20시 '라디오 불꽃쇼', 20시 50분 '군민 사연 공모 불꽃쇼', 21시 30분 '김도엽의 추억찾기' KBC 라디오 공개방송, 23시 30분 '2020 보성 블루이코노미 선포 세리머니 불꽃쇼', 24시 '2020 새해맞이 불꽃쇼' 등 총 4번의 불꽃쇼가 진행된다.

이번 보성 불꽃축제는 음악, 사연, 불꽃, 공연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퍼포먼스로 진행되며,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펼쳐지는 전국 최초의 불꽃쇼다.

특히, 이번 축제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인 12월 31일, 보성자발 빛축제를 관람하고 희망의 빛인 불꽃을 보면서 한 해의 소망을 기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더불어 화려한 불거리와 다양한 즐길거리까지 함께하며 연말연시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꽃축제에 이어 새해 아침 7시에는 같은 장소(울포해변)에서 새해맞이 행사가 펼쳐진다. 경자년 신년 휘호 퍼포먼스와 함께 새해 불꽃쇼, 떡국 나눔 등 떠오르는 새해와 함께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돼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불꽃계의 거물 한화그룹과 함께 준비하는

축제인 만큼 보성 울포해변 불꽃축제를 대한민국 3대 불꽃축제로 키워가겠다."라며 "화려한 불꽃과 떠오르는 새해를 볼 수 있는 빛의 도시 보성에서 잊지 못할 새해의 첫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원활한 행사장 차량 진입을 위해 12월 31일 17:30부터 02:00까지 셔틀버스 10대를 운행한다. 셔틀버스는 보성다향체육관(15분간격)과 북재(5분간격)에서 탈 수 있다.

또한, 18시부터 24시까지 밤과 새벽에 울포삼거리 방향 도로가 일반통행으로 운행되며, 24시부터 2시까지 울포삼거리에서 밤과 새벽이 일반통행으로 운행된다.

보성=인구일 기자

www.jepa.kr

##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번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사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